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9
----------	-----

2019. 8. 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999	2019.8.7	2019.8.13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8.29)	원안동의

III. 제안설명의 요지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1.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019.7.11.)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나.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 역사 보행네트워크 구축 : 정동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옛 길을 통해 연결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
- 재생 활성화거점 조성 :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잠재력이 큰 중심공간에 역사재생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조성
- 역사명소 가꾸기 : 지속가능한 재생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수의 역사, 문화, 교육기관 등 지역주체와 함께하는 공동활동 등을 통한 가치 재생

3. 추진경위

- '16.0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착수
- '16.05.03. 정동 역사재생 프로젝트 외교공관 설명회
- '16.06.16. 정동 역사재생 지역협의체 발대식
- '16.07.~09.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공론화 진행(아이디어 캠프 등)
- '16.10.12.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대외발표
- '16.11. 정동 역사문화나눔캠프 개최(2회)
- '17.01.23. 지역협의체 전체회의 개최(활성화계획 구상 설명회)
- '17.02.15.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2단계)
- '17.06. 정동 역사특강 '정동길에서 만나는 대한제국'
/ 대한제국선포 12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 '17.08.28. '미리 가보는 대한제국의 길' 걷기행사
/ 지역협의체 전체회의(운영위원회 구성)
- '17.09.11.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8.02. '대한제국의 길에서 돌아옴' 행사 개최
- '18.04.06. 지역협의체 공식발족 및 창립총회
- '18.04.11. 세실극장 재개관 기념식(정동 문화재생)
- '18.07.05.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공고
- '18.07.05. 지역협의체 공감워크숍 및 제2차 총회 개최
- '18.10. '시월정동' 행사(지역축제 활성화 - 10월은 정동의 달)

- '18.10.25.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개소(정동아파트 내)
- '18.12.12. 지역협의체 공감워크숍 및 제3차 총회 개최
- '19.01.~06.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재생사업 구체화 및 소통활동
(재생지원센터, 지역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축제준비모임 등)
- '19.07.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IV.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제출 경위

- 정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603,000㎡)은 2017년 2월 도시재생 유형 중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년 7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1)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19.7.11)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한 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 「2025 서울시 전략계획」 공고



□ 대상지 현황

- 정동 일대는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과 근대종교, 교육, 의료 등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세계열강들의 외교관 등이 활동했던 건물들이 위치한 근대화의 중심공간이자 대한제국의 원공간(原空間)으로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유한 서울 도심 속 살아있는 역사적 공간임.
-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 시대 옛길 등 주요 역사가로가 현존하고, 보전가치가 큰 근·현대 건축자산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문화시설과 기관, 단체, 외교공관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과 정동문화축제, 정동야행 축제 등 풍부한 문화인프라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 정동은 도심한복판에 근현대사와 도시건축문화가 집적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역사적 의미가 훼손되면서 대한제국 역사의 원형은 보전되지 못한 채 덕수궁 돌담길로 기억되는 등이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 지역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5년에 비해 인구²⁾가 50.5% 감소하여 도심 인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282동)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204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2.3%로 옛 흔적의 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음.
- 근대역사유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재생의 동력으로 삼아 잊혀져 가는 대한제국 13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동 일대의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종합 재생하여 역사보존 및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6년 10월 12일 “정동貞洞, 그리고 대한제국13” 정동 역사재생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음.

□ 활성화계획(안)의 개요


가. 목표와 추진전략

- 활성화계획의 비전을 “정동貞洞, 그리고 대한제국13”으로, 목표를 “역사적, 장소적 가치의 재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역사보행 네트워크 구축”, “재생활성화 거점 조성”, “역사명소 가꾸기” 세 가지로 구상하였음.

나. 사업계획

2) 인구통계 자료는 행정동 경계인 소공동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함. 인구추이 자료는 활성화지역 선정시기(‘17.2)를 고려하여 서울 통계서비스 주민등록인구(외국인포함) 2015년 기준 자료를 사용함. 소공동은 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약 82.58%를 차지함.

- 3대 추진전략에 따라 단위사업 18개(핵심사업 7개, 일반사업 11개), 세 부사업 기준으로 총 25개 사업을 계획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시비 200억원(민간자본 15억원 별도)을 투입할 예정임.
- “역사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동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자 원을 연결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 를 위해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약 75억원을 계획하였음.

역사보행 네트워크 구축			
 <p>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옛 길을 통해 연결, 역사성 회복과 지역활성화 촉진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자산의 가치발굴, 근대역사 재조명</p>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핵심 사업	A-1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대한제국시기 등 근대역사유산, 장소를 연계한 역사보행탐방로 조성	3,067
	A-2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멸실된 한양도성 정동구간의 역사성회복과 역사탐방네트워크 구축	2,060
일반 사업	A-3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옛 길의 역사성을 고려한 새문안로2길-정동로터리 구간 보행환경 개선	1,551
	A-4 선원전 경계부 아트월 조성사업	선원전의장기복원계획을 고려, 보행로변담장의 경관개선과아트월설치	500
	A-5 보행 편의공간조성 및 모니터링사업	역사가로의 보행환경 모니터링 평가, 시민누리공간 활용계획 수립	360

- “재생활성화 거점조성”은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잠재력이 큰 중심공간 에 역사재생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서소문 청사 열린경관거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약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재생 활성화거점 조성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잠재력이 큰 중심공간에 마중물 역할의 거점조성
주변의 역량 있는 지역주체의 거점시설과 연계, 파급효과 확산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핵심 사업	B-1 서소문청사 열린 경관거점 조성사업	B-1-1 광무전망대 설치사업 • 전망대 기능강화, 경관거점 및 문화휴식공간 활용	930
		B-1-2 앵커시설(정동리안재)조성사업 • 기존 주차관리소 리모델링, 지역내 앵커시설 조성	700
	B-2 성공회성당앞대 역사문화거점조성사업	B-2-1 세실극장 문화재생사업 • 세실극장의 보전 및 운영지원	528
		B-2-2 세실극장 옥상 시민공간(세실마루)조성사업 • 세실극장 옥상을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	989
	B-3 정동외교역사공원 조성사업	• 근대외교타운의 역사성을 담은 역사공원 조성	1,487
일반 사업	B-4 황토현 보행광장 조성사업	• 옛 황토현, 신교동 역사적 장소성 반영한 광장조성	300
	B-5 동화약품부지내 정동역사문화정보관 조성사업	• 역사문화교육, 체험공간 등 활성화 영커공간 조성	400
	B-6 구세군 중앙회관 '정동 1928'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 등 복합문화거점 조성	1,700

20

- “역사명소가꾸기”는 지속가능한 재생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수의 역사, 문화, 교육기관 등 지역주체와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에 약 66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음.

역사명소가꾸기

지역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기반의 지속가능한 재생활성화
기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로컬거버넌스로의 전환 추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핵심 사업	C-1 모바일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모바일기반의 역사탐방로 안내시스템구축	300	
	C-2 정동 지역축제 활성화사업	• 축제의 통합적 운영, 지역축제의 기획개발	1,540	
일반 사업	C-3 근대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관 플랫폼 활용한 근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	
	C-4 역사가로 상가군 경관개선사업	• 가로변 노후상가입면, 간판 등 정비	797	
	C-5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지원사업	• 정동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50	
	C-6 정동 역사재생 기록화사업	• 정동 재생사업 관련자료 아카이빙	200	
		C-7-1 정동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운영	• 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시스템 운영	1,971
		C-7-2 지역역량강화 및 시민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지역협의체 활동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450
		C-7-3 정동 시민아카이브 DB구축사업	• 시민과 함께 정동 생활사 등 자료구축	400
		C-7-4 정동푸럼 운영	• 정동인문학, 역사문화도시의 미래포럼	300
	C-7-5 정동축제/프로그램은 오프라인 통합 홍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상시적 지역축제/프로그램의 공유 플랫폼 운영	390	
	C-7-6 주민공모사업	• 지역주도적 재생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금사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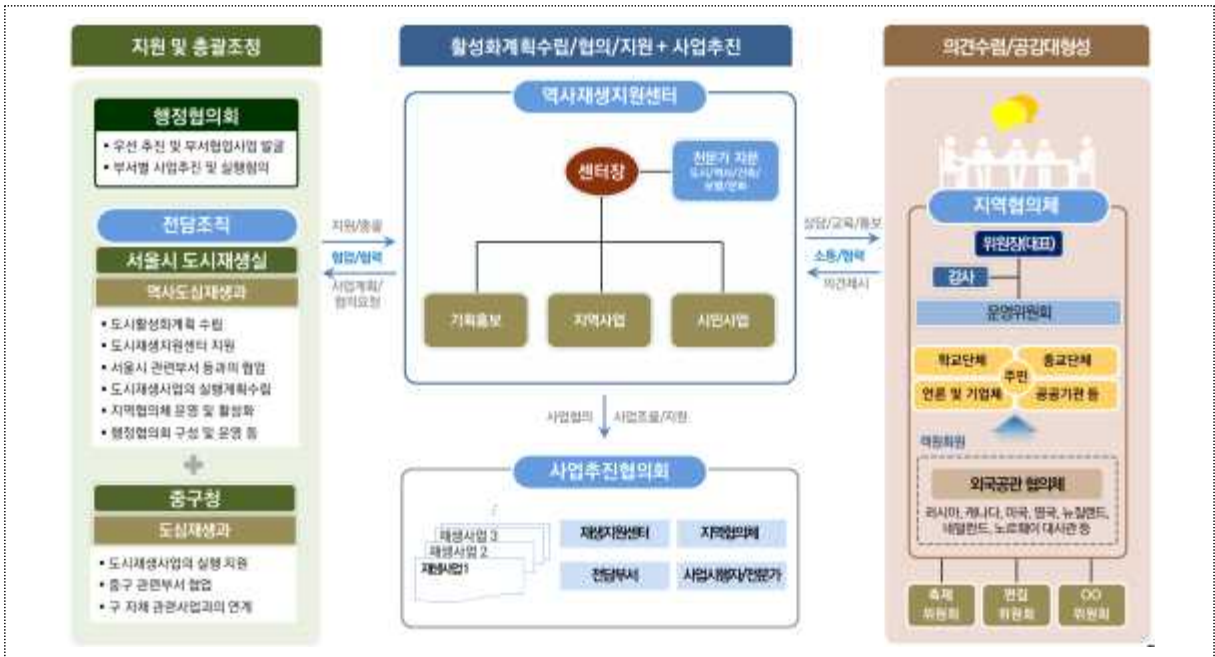
28

〈종합계획도〉



다. 실행방안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대 추진전략에 따라 핵심사업 7개, 일반사업 11개 등 세부사업기준 총 2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전담조직, 활성화 계획수립기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과 단체중심의 정동지역 공동체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의 마중물사업 예산(시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재생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과 지역협력형 재생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주도의 자생적 추진체로 전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임.



○ 활성화지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³⁾을 수립 중으로 이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활성화지역 구역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에 추가하여 동측 시청, 환구단 영역과 서측 서울역-서대문 1·2구역을 포함한 경계임.



3) 2014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며, 2019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에정임.

□ 검토사항

가.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간의 관계

- 정동일대 도시재생의 비전을 “정동貞洞, 그리고 대한제국 134)”으로 제시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 근대 문화가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져 온 다양한 근·현대적 건축물과 문화 등의 장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려는 의미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보여짐.
- “역사적, 장소적 가치의 재생”이라는 목표의 제시와 세 가지의 추진전략 설정은 정동일대 상가와 거주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⁵⁾를 해소하고, 역사도심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역사적 상징성 강화, 역사문화자원 범위 제시 및 관리체계구축, 도심 원구조 보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유도 및 관광자원화 등 정동일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료됨.

나. 세부사업 관련

- 기존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역사도심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 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이 지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을 반영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여 세부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짐.

- 세부사업은 주로 역사보행 네트워크와 보행 편의공간 조성, 거점조

4)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이후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13년을 의미

5) ‘활력없는 거리’,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미흡’, ‘역사문화자원과 주변부 부조화

성, 지역축제 활성화, 상가군 경관개선,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등으로 요약됨.

- 재생사업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는 이미 장소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의 내실화로 장소적 품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됨.

다만, 이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보행환경 등 물리적 공간조성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통해 나온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담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 외에 관련 부서의 유형별 사업계획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정동일대 예술문화 자원 밀집지역'과 '연접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 유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또한, 단절된 순성길(새문안로(돈의문)~서소문로(소의문), 750m, 시비 2,060 백만원) 구간 연결시 창덕여중과 이화여고 교내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MOU체결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다. 추진체계 관련

- 재생사업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행정 전담조직, 활성화 계획수립기관 등 관련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주체별 역할과 활동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여건과 역량에 맞게 개선하여 상시적 현장지원과 운영

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들 즉,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의식 약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광역과 현장센터와의 역할과 기능분담 문제, 센터의 고용 불안전성, 현장센터 운영의 독립성 부족, 주민참여의 지속성과 집중도 확보의 어려움 등 추진주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주민-상인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들의 사업이해도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음. 아울러 재생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자생적인 수익구조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재생사업 평가 관련

-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과정점검)와 성과관리(효과점검)로 구분⁶⁾하여 역사문화적 재생에 적합한 특화지표와 중심시가

6) 사업관리항목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항목으로서 거버넌스 형성·운영 사항, 지역주체(주민, 상인, 지역기관단체 등) 참여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 활성화계획 추진 및 집행실적 등을 포함함.

성과관리항목은 정동 재생활성화지역에 적합한 특화지표와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일반적 공통지표로 구성됨.

지형에 적합한 일반적 공동지표를 설정하였음⁷⁾).

- 특히, 성과관리에서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일반적 공동지표와 정동 일대 그룹화된 사업목표(추진전략)에 따라 특화된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설정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에 따른 재생사업의 성과평가라는 점에서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보여짐. 다만, 공동지표에서 ‘상권활성화’의 평가 지표로서 주로 정략적 지표(상가업체수, 3년이상 영업점포수, 상공인 체감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바, 상권활성화는 이 지역의 특성상 ‘찾아가는 명소’로서 방문객 증가의 간접 지표(성과)로 인식할 수 있겠으나, 정동 일대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역사문화적 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가 침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되므로, 정량적 지표 외 정성적 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계획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는 ‘재생사업의 실적’과 ‘재생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업공정 및 예산집행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재생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등 영향(사업의 전·후 비교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특히,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환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7) 지표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변화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개선 또는 발전된 점이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표 설정은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하겠음.

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 및 의회 상임위 보고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의견제시,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의견

첫째, 정동일대 예술문화 자원 밀집지역과 인접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 유도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단절된 순성길 구간 연결시 관계기관과의 MOU체결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셋째, 정동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 계획과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넷째, 정동을 대표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중심시가지내 상주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여섯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함.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999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019.7.11.)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나.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 역사 보행네트워크 구축 : 정동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옛 길을 통해 연결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
- 재생 활성화거점 조성 :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잠재력이 큰 중심공간에 역사재생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조성
- 역사명소 가꾸기 : 지속가능한 재생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수의 역사, 문화, 교육기관 등 지역주체와 함께하는 공동활동 등을 통한 가치 재생

3. 추진경위

- '16.0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착수
- '16.05.03. 정동 역사재생 프로젝트 외교공관 설명회
- '16.06.16. 정동 역사재생 지역협의체 발대식
- '16.07.~09.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공론화 진행(아이디어 캠프 등)
- '16.10.12.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대외발표
- '16.11. 정동 역사문화나눔캠프 개최(2회)
- '17.01.23. 지역협의체 전체회의 개최(활성화계획 구상 설명회)
- '17.02.15.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2단계)
- '17.06. 정동 역사특강 '정동길에서 만나는 대한제국'
/ 대한제국선포 12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 '17.08.28. '미리 가보는 대한제국의 길' 걷기행사
/ 지역협의체 전체회의(운영위원회 구성)
- '17.09.11.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8.02.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웃' 행사 개최
- '18.04.06. 지역협의체 공식발족 및 창립총회
- '18.04.11. 세실극장 재개관 기념식(정동 문화재생)
- '18.07.05.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공고
- '18.07.05. 지역협의체 공감워크숍 및 제2차 총회 개최
- '18.10. '시월정동' 행사(지역축제 활성화 - 10월은 정동의 달)
- '18.10.25.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개소(정동아파트 내)
- '18.12.12. 지역협의체 공감워크숍 및 제3차 총회 개최
- '19.01.~06.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재생사업 구체화 및 소통활동
(재생지원센터, 지역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축제준비모임 등)
- '19.07.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역사도심재생과 도심계획팀 정화영, 변재원(☎ 2133-8495)